

3

성사재인(成事在人) 인계관(人界觀)의 자생적 근대성

Indigenous Modernity of the View of Human Realm as Seongsajaein

목차

- 1 서론 - 인계관(人界觀)이란 무엇인가
- 2 구천(九天) 인신강세와 관계 변동
- 3 성사재인(成事在人) 사상: 권위의 이동
- 4 마음(心)의 철학적 의미
- 5 유불선(儒佛仙) 사상과의 비교
- 6 서양 근대성과의 차이
- 7 천지보은(天地報恩)과 인간윤리
- 8 삼계(天·地·人) 구조의 가변성
- 9 결론 및 자생적 근대성의 의의
- 10 참고문헌 및 문헌 출처

서론: 인계관(人界觀)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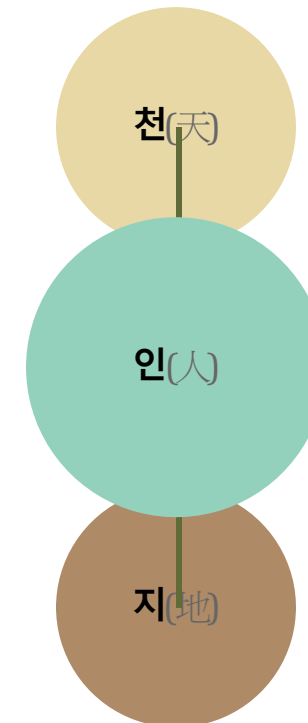
인계관의 정의와 의미

- 인계관은 대순사상에서 **인간 세계에 대한 관점**으로, 인간이 천지와 신명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
- **성사재인(成事在人)**: 모든 일의 성공은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핵심 사상
- 구천상제의 **인신강세**로 인해 우주 질서가 재편성되고 인간의 지위가 상승
- 전통적 **천존지비인경**에서 **인존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문제의식

- 인간-신명-천지의 관계 변동이 가져온 **새로운 우주론적 질서**
- 인간 중심 세계관이 동양 전통 및 서양 근대성과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인계관의 삼차원적 구조



『대순진리회요람』 발췌:

"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의 삼
대요체로 치천하(治天下)한다."

구천(九天) 인신강세와 관계 변동

구천의 인신강세란

- 구천(九天)의 상제께서 **인간의 몸(인신)으로 하강(강세)**하여 천지공사를 행함
- "구천대원조화주신이 인간 세상에 강림하여 삼계(天·地·人)를 구하는 구천상제의 대역사"
- **인계와 천계의 소통**: 신적 권위가 인간 세계에 직접 개입

신명·인간·천지의 관계 변동

- 전통적 **천존지비인경** 구도에서 **인간 중심**으로 권력 이동
- "천지는 일월이요 일월은 곧 일음 일양이라. 음양이 **합덕**하면 만물화생의 도가 있게 되느니라."
- **삼계개벽**: 천계, 지계, 인계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신질서 형성
- 신명(神明)의 위상 변화 — 상제의 **인간에게 권능 부여**

권위의 이동 도식



『전경』 발췌: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

성사재인(成事在人) 사상: 권위의 이동·인존시대

인간중심적 세계관의 등장

- ◆ **성사재인**: "이제는 신도 인간을 통하지 않고는 천지 경영의 조화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었다"
- ◆ 전통적 **천존지비인경** 구도에서 **인존시대**로의 결정적 전환
- ◆ "천지의 이법을 쓰는 것은 사람이며, 천지의 조화를 이루는 것도 사람이다"

권한의 이양 과정

- ◆ 인간 주체성 확립: 천지 경영과 신도(神道)가 인사(人事)의 뜻에 맞추어짐
- ◆ 인간은 수동적 존재에서 우주의 **관리자경영자**로 위상 변화

"천하를 주재하는 것은 천존이나 지존이 아닌 인존이다... 이제부터 인존의 시대가 왔느니라"

- 『전경』

권위의 이동 흐름



인존시대의 의미
인간이 천지 만물의 주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대

마음(心)과 영대의 철학적 의미

대순사상의 마음 이해

- "마음은 신의 존재 형태이자, 인간의 본체이며, 천지의 중심"
- 영대(靈臺): 신명이 드나드는 통로이자 인간과 신명의 교류 공간
- 『전경』: "天地의 중심이 心이요 心也는 일신(一身)의 주재(主宰)이 나라"

인간의 자기변혁 가능성

- 마음을 통한 자기수행과 자기완성의 가능성
- 『전경』: "마음을 속이지 말고 일심(一心)으로 수도하면 천지신명이 모두 움직인다"
- 인간은 마음 수양을 통해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경지(神人一體) 도달 가능



동서양 인간관 비교

동양 철학	서양 근대철학
마음(心) 중심	이성(理性) 중심
정신과 신체의 통합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
天人合一(천인합일)	인간과 자연의 분리
내면 수양을 통한 변화	이성을 통한 외부 세계 정복
감성과 이성의 조화	이성의 우위성
신인조화(神人調化)	인간중심 주의(人間中心主義)

대순사상의 차별성

인간의 내적 수양과 외적 실천의 균형.

유불선(儒佛仙) 사상과의 통합, 재해석

전통사상과 대순사상의 인간관

- 유교(儒敎): 오상(五常)과 의리(義理)를 통한 **인격 완성** → 대순사상에서 '인간 관리 권한 위임'으로 재해석
- 불교(佛敎): 적멸(寂滅)과 허무(虛無)의 경지 추구 → 대순사상에서 '인간 주체성 강화'로 확장
- 도교(道敎): 이조(離騷)와 자연합일 지향 → 대순사상에서 '인간과 신명의 조화'로 재구성

대순사상의 통합적 접근

- 『전경』 교법 3장 29절: "유불선(儒佛仙)의 도통신(道通神)을 이어 받아 도수를 정리하고 신정(神政)을 바로 잡아"
- 유불선 수행법의 내면화: **심경(心境) 구조**를 개인 수양에서 '공공선(公共善)'으로 확장
- 전통사상의 한계(초월성, 퇴행성)를 **능동적 자생적 근대성**으로 극복

주요 개념의 비교 및 통합

개념	유교	불교	도교	대순사상
인간의 본질	성선설 (性善說)	무아 (無我)	자연인 (自然人)	신인조화 (神人調化)
수행 방법	존양성찰 (存養省察)	선정 (禪定)	양생 (養生)	수도 (修道)
궁극 목표	성인 (聖人)	해탈 (解脫)	신선 (神仙)	도통진경 (道通眞境)
인간-신명 관계	경외 (敬畏)	초월 (超越)	소통 (疏通)	상호작용 (相互作用)
인세 구원관	수기치인 (修己治人)	보살행 (菩薩行)	제세 (濟世)	해원상생 (解冤相生)

대순사상은 유불선의 핵심 가치를 종합하면서 '인존(人尊)' 중심의 통합적 세계관을 구축

서양 근대성 비판과 대순 인계관

서양 근대적 관점의 한계

- 서양 계몽주의의 **인신분리**: 신의 위치가 축소되고 인간 이성 이 중심에 위치
- 서구적 **구성주의**의 한계: 인간 주체와 객체를 철저히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
- 이성 중심의 **합리성 추구**는 정신과 물질, 주관과 객관의 분열 초래

대순 인계관의 독창적 관점

- **조리(條理)**: 이치와 논리가 단순한 인간 사고의 산물이 아닌 우주적 원리로서 작동
- **기화(氣化)**: 물질과 정신의 구분 없이 기(氣)를 통한 변화와 소통의 원리
- **삼계 상호관계**: 서구의 인간중심주의와 달리 천·지·인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인간 위상 정립

서양 근대성과 대순사상 비교

구분	서양 근대성	대순 인계관
신과 인간	신 위상 감소, 이분법적 분리	신인조화(神人調化)
인간 역할	자연 정복, 대상화	천지공사 참여, 조정자
가치의 원천	인간 이성, 합리성	천지인 상생적 이치
인식론적 특징	주체/객체 분리	주객 합일, 몸·마음 통합
변화의 속성	직선적 진보, 발전	순환적, 상생적 변화

"대순사상은 서구 근대성의 인간중심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자연의 유기적 관계성과 인간-신명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인계관을 보여준다."

천지보은(天地報恩), 해원상생의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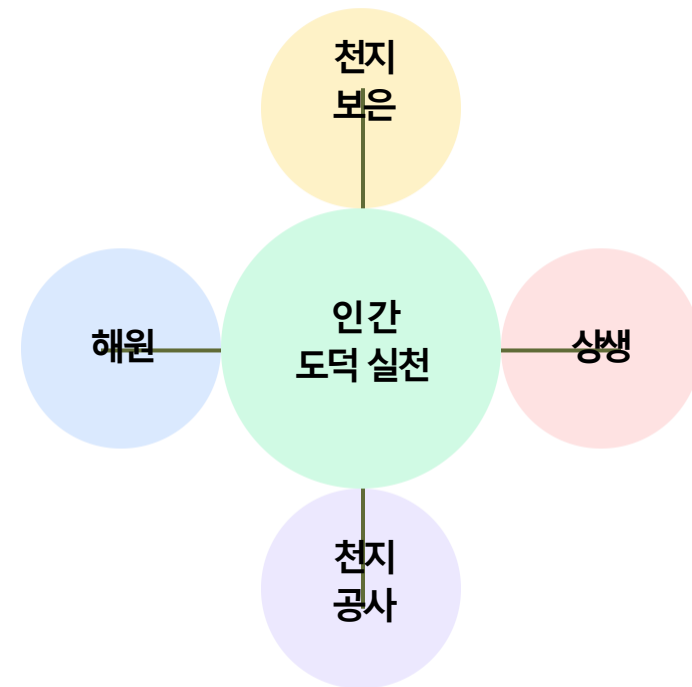
천지보은과 인간의 윤리적 책임

- **천지보은**: 천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인간이 천지를 받들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 의식
- 『전경』 교법 2장 55절: "천지는 만물의 부모이니라 故로 인사는 천지의 덕을 본받아야 하느니라."
- **해원상생**(解冤相生): 원한을 풀고 서로 살리는 상생적 윤리 체계

인계관과 윤리적 실천

- 인간이 **천지공사의 참여자**로서 세상 개벽에 동참하는 실천 윤리
- **인간 도덕**이 천지자연의 변화를 가져오는 인존시대의 윤리적 책임
- 상생의 도덕적 실천: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나를 잘 되게 하는 원리**

해원상생 윤리 체계



“해원상생 · 보은상생은 상생의 원리이다. 즉 남을 잘 되게 하는 공사는 나도 잘 되게 하는 것이다.”

- 『대순진리회요람』 -

삼계(天·地·人)의 가변성, 지위상승, 호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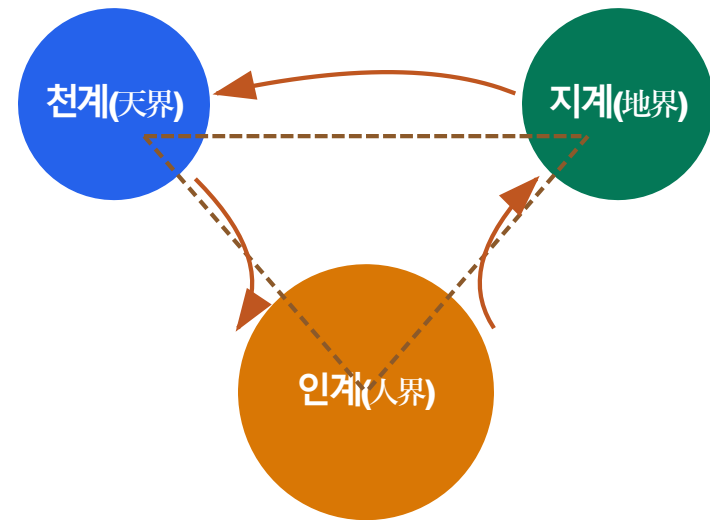
삼계 구조의 특성

- **가변성**: 기존 고정된 위계에서 벗어나 천계·지계·인계의 유동적 관계 형성
- **지위상승**: 인간의 위상이 신명과 더불어 천지 변화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위치로 격상
- **상호호환성**: 인간의 수행을 통해 신명의 지위 획득 가능, 삼계가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변화

현대적 의미와 시사점

- 기존 동양 전통의 위계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 중심 **자생적 근대성** 확립
- 신인조화(神人調化)를 통한 삼계의 **통합적 조화**와 상생의 구현
- 인간 주체성 강화와 동시에 **천지와의 공존** 강조—생태적 의의

삼계 상호호환 구조도



『전경』 발췌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미륵을 장차 누구든지 닮아야 하리라.”

- 대순전경 3편 41장 -

결론 및 자생적 근대성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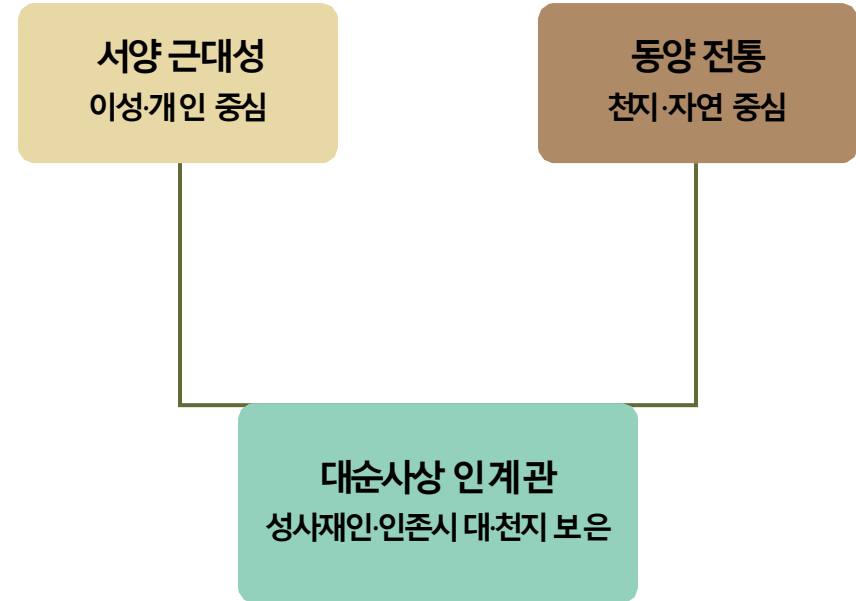
대순사상 인계관의 사상사적 의미

- 인간 중심성(人中心性)의 새로운 패러다임: 천지신명을 중재하는 주체로서의 인간 위상 정립
- 동양 전통 인간관(천존지 비인경)의 역전과 재구성: 인존시대의 철학적근거 제공
- 서양 근대성의 분절적 인간-자연 이분법과 달리, 통합적 조화로운 관계성 확보

자생적 근대성의 가능성과 전망

- 서구식 근대성 모델이 아닌 한국적 맥락에서 발생한 인간중심적 세계관의 현대적 의미
- 인계관의 삼계 상호호환 가능성이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인간-신명-자연 공존 모델
- 현대 환경·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조화보은(報恩)의 실천적 가치

자생적 근대성의 위치



핵심 참고문헌

『대순진리회요람』, 대순진리회 교무부, 1969.

『전경』, 대순진리회 교무부, 1974.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개혁과 지상선경」, 『신종교연구』 29, 2013.